

310장 - 아 하나님의 은혜로

-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38장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1)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기도 담당

9/8(화)	9/9(수)	9/10(목)	9/11(금)	9/12(토)	9/14(월)
김창동 안수집사	심재현1 안수집사	박기홍 안수집사	안상현1 안수집사	박기철 안수집사	박성해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정기도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310장 다함께
기도	심재현1 안수집사
성경봉독	사무엘하 9:6~11 인도자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벽찬양대
설교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정기도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함께
찬송	438장 다함께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사무엘하 9:6~11 >

6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9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0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11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9월 9일(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새 아침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주시고, 연약할 때 붙드시며, 두려울 때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므비보셋을 먼저 찾아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가 이미 바뀌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절뚝거리는 연약함이 있어도 왕의 식탁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풍성히 흘려보내게 하시며, 상한 자를 품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며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큰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을 기억하시고, 피해를 입은 이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구조와 복구의 손길이 신속히 이어지게 하시며, 필요한 도움과 지원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